

답스향곡



[해제]

출가한 시누이가 친정을 그리워하며 편지로 <사향곡(思鄉曲)>을 지어 보냈으므로 그 회답의 형식으로 쓴 가사 작품이다. <사향곡>의 내용 중에 편지를 받는 시누이가 광산 김씨 별열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의 작자는 광산 김씨 부인임을 알 수 있다. <사향곡>에서 시누이가 친정 집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에 대하여 너무 친정 걱정을 하지 말라는 충고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씩스의 미거하고 천하반편 낫썸아듯
예적이 소여하여 책망이 잇스려니
늑렴의 동동하랴 곳치기가 어려운듯
허물을 아니시니 황송감스 총양업다
금춘이 득지니고 스오월이 불원하니
손여의 스인회포 익연 녑니소서
양월간의 의논하여 부딪부딪 드러가오셔온
식딕의 미인몸이 본가의 더잇슬가
그런일을 심각하여 부딪부딪 득러가오소서
간절한 녑의정우 낫낫치 아로와셔
필연을 넘하시니 쥌쥌무식 으여조라
한사리가 아니나니 괴록홀길 전이업다
부모님니 만세무강 하압고 부귀공명 가득하여
조손이 장성하여 문호의 비시누고
가문의 경스되야 쌍용을 빗겨타고
이리저리 다니시며 총총한 조여복의
다각각 효도부득 길성복녹 어히하고
만딕유전 흠옵소서 손여의 저근정성
쥌야축슈 비누이다

답송향곡

미스관 계월당의 춘면이 몽농더니
총외의 더든날의 어느각 되엇더니
만물리 화창하고 빅설지저골제
인방의 갓씨소리 놀니여 썩다라셔
남총을 반기하고 표연니 선노라니
연적은 해날이고 황조은 환우홀제
금단성 두롱촌의 우리시미 계신곳슬
손으로 지정하야 멀이셔로 바리보니
놉고놉푼 청손이요 김고김푼 빅운이라
소식일귀 안겨시니 말슴열귀 뒤담할구

황혼의 총두다려 일봉서 써여보니
 시편을 모다보와 관곡기도 기리엿다
 슈슴스향 초초보니 은은기도 흐도홀스
 셔중의 벨곡조은 무어시라 일흠흠게
 싱각이 몽스되고 몽스가 문법되야
 귀귀마당 정담이요 글자마당 격언이라
 진인의 유품석도 일글을 못당하고
 즈미의 촉학시로 이거시 밋칠소야
 칠삭을 기린회포 일편중의 가득하니
 증즈방의 스향곡은 말로만 드러더니
 오늘날 스향곡은 눈으로 귀경하니
 한두번 귀경스록 진정을 알리로다
 연이오나 이한말을 김죽하여 드러보소
 인간의 허다이별 그만저만 더저두고
 제몸의 알들이별 더강만 허울진디
 낙양거의 견츨풍의 비스친도 잇셔시며
 병삼슈유 스실인의 요지형제 잇거스니
 하물며 여즈몸이 그딤뿐 안이여늘
 간중석여 무엇하며 심화살여 슬디업닉
 명문디각 후예로셔 부싱모혹 슈은하여
 연광이 초오신후 고가현부 되야가니
 존당의 총총전의 남도다 그리하며
 일문의 각각은혜 제마닥 바들소야
 화락하신 ���연금준 여경이 무궁하고
 중구하신 일신부귀 전정 이말이로셔
 친정으로 일은지되 쏘무어시 거련호오
 쥬당의 양접시하 만세만영 허룩신중
 체원이 담낙하고 후진이 중원하니
 현미갓흔 호팔즈야 어디다시 구홀소가
 필경의 그원디로 갓가니 출가하여
 양조은 분명하다 ���이가 못드되야
 당숙의 근처행초 못뵈올줄 어이할가
 말라하신 그정의도 행식이 총망일세
 인편이 드물어도 워려가 적어시며
 심중의 잇논소회 셔즈마당 즈시하니
 날갓하니 비활진디 도로혀 호강일제
 즈안을 조실하고 학발편편 우리부친
 목하의 핏승척 오미의 잇쳐스니

이러타 슬픈심화 어나고의 풀일손가
이러타 실픈심회 그문의 드러올제
혈혈흔 환초으로 소견이 만기더니
빅흙업시 연천후 야지리 보호후며
구고의 어진덕택 일심으로 지도후니
종족일지 비복일지 속아의 동동거나
소임의 중한몸의 역역키 기록후니
전일의 우리정은 의논이 구손후고
일언 반스라도 송독을 갖치할제
전스 적스은들 어이흔즈 불닌던가
그누문 화초들도 각식의로 심무더니
후원이며 전세송의
업느거손 어더오고 잇느거션 나뉘후여
세우중의 붓도드며 뉘한중의 물쥬기와
저곳션 엇더엇더 이풀은 무엇무엇
풀씩거 쓰옴후기 쏏싸서 비괴후기
씨느지 칠식만의 금춘승월 도라와서
이쏏시 만발후고 저푸리 향닌나니
푸리조연 겨련되고 쏏쏏시 다정후듯
이스람은 아니오나 그공역은 느마시니
네가초마 씨러지며 니가초마 ㅎ 글소야
죽일화야 금일화야 구정은 느마시니
거년인지 금연인지 봄은비록 저무오나
영원의 관원일일 풍국시절 도라오면
천조기편 슈올지니 당송의 슈유어더
귀령부모 후오실제 호안을 송봉후세
청춘소연 어진군조 빅마형송 후행이세
연연후 낫비시로 후후이 악슈후면
눈무리 우슴되고 우슴이 말이되야
일당화슈 관회중의 만단정회 폐울적에
원망도 어디가고 한탄도 업셔시니
회답을 못다보야 단문과 졸필도 뒤강이닷
일씩 녹십귀라 후여도 슈난후 말은
제제하기로 그리났뉘듯
일백 육십귀은 절반을 회식커라
첫스향곡은 시미의 적셔온
두제스향곡은 동싱뉘소답

육갑

갑자을축 히중군 병인정묘 노중화 무진기스 디린목 경오신미 노방토 임신계유 겸봉금
갑술을히 산두화 병조정축 간하슈 무인기묘 성두토 경진신스 킷남금 임오계미 양유목
갑신을유 천중슈 병술정히 옥상토 무조기축 변역화 경인신묘 송킷목 임진계스 중유슈
갑오을미 스중금 병신정유 스합화 무술기히 평치목 경조신축 박승호 임인계묘 김박금
갑진을스 옥동화 병오정미 천하슈 무신경기 디역토 경술신히 초현금 임조계축 승조목
갑인을묘 디계슈 병신정스 스중토 무오리미 친승화 경신신유 성유목 임술계히 디히슈
기구흥계로층층

[현대역]

백사(百事)75에 미거(未擧)하고 천하 반편(半偏)76 나쁜인 듯
 예절이 소여(掃如)하여77 책망(責望)78이 있으려니
 내렴(內念)79의 동동(憧憧)80하랴 고치기가 어려운 듯
 허물을 아니시니 황송감사(惶悚感謝) 측량(測量)없다81
 금춘(今春)이 다 지나고 사오월(四五月)이 불원(不遠)하니
 손녀의 쌀인 회포 애연(哀然)82 넉니소서83
 양월간(兩月間)에 의논하여 부디부디 데려가오셔온
 시덕에 매인 몸이 본가(本家)에 더 있을까
 그런 일을 생각하여 부디부디 데려가오소서
 간절한 나의 정을 날날이 아뢰워서
 필연(筆硯)84을 임하시니 준준무식(蠢蠢無識)85 아녀자라
 한사리가 아니나니 기록할 길 전이없다
 부모님네 만세무강(萬世無疆)86 하옵고 부귀공명(富貴功名)87 가득하여
 자손이 장성하여 문호(門戶)88에 빛이 나고
 가문의 경사되어 쌍용을 빗겨타고
 이리저리 다니시며 층층(層層)한 자녀복의
 다각각 효도받아 길경89복록(福祿)90 여해(如海)하고91
 만대유전(萬代流傳)92 하옵소서 손녀의 적은 정성
 주야축수(晝夜祝手)93 비나이다

답사향곡

미산관 계월당의 춘면(春眠)1이 몽롱(朦朧)2더니
 창외(窗外)의 더든 날의 어느 각 되었더니
 만물(萬物)이 화창(和暢)하고 백설(百舌)3 지저귐 제
 인방(寅方)4의 까치소리 놀래어 깨달아서
 남창(南窓)을 반개(半開)하고 표연(飄然)5이 섰노라니
 연작(練鵲)6은 헤날리고 황조(黃鳥)7는 환우(換羽)8할제
 금단성 두롱촌의 우리 시매(媿妹)9 계신 곳을
 손으로 지점(指點)10하여 멀리서로 바라보니
 높고 높은 청산(靑山)이요 깊고 깊은 백운(白雲)이라
 소식(消息) 일귀(一句) 안 계시니 말씀 열귀 대답할까
 황혼(黃昏)의 창두(蒼頭)11다려 일봉서(一封書)12 떼어보니
 시편13을 모두 보아 관곡(款曲)14키도 그지없다
 수상사행(數三四行) 찾아보니 은은(隱隱)키도 하도할사
 서중(書中)의 별곡조(別曲調)는 무엇이라 이름할고
 생각이 몽사(夢事)15되고 몽사(夢事)가 문법(文法)되야
 귀귀(句句)마당 정담(情談)16이요 글자마당 격언(格言)17이라

진인(晉人)의 유평석도 이 글을 못 당하고
 자미(子美)18의 축학시로 이것이 미칠쏘냐
 칠삭(七朔)을 그린 회포 일편중(一片中)에 가득하니
 장자방(張子房)19의 사향곡(思鄉曲)20은 말로만 들었더니
 오늘날 사향곡은 눈으로 구경하니
 한두번 구경스록21 진정(眞情)을 알리로다
 연(然)이오나 이 한말을 짐작하여 들어보소
 인간의 허다(許多) 이별 그만저만 던져두고
 제 몸의 알들22이별 대강만 하올진대
 낙양거의 견추풍23에 배사친(倍思親)24도 있었으며
 병삼슈유 쓰실인의 온귀형제 있었으니
 하물며 여자몸이 그대뿐 아니어늘
 간장 썩여 무엇하며 심화(心火)25끌여 쓸데없네
 명문대가(名門大家)26 후예로서 부생모육(父生母育)27 수은(受恩)28 하여
 연광(年光)29이 차오신 후 고가현부(故家賢婦)30 되어가니
 존당(尊堂)31의 층층(層層)전의(典儀)32 남도 다 그리하며
 일문(一門)의 각각 은혜 제마다 받을소야
 화락(和樂)하신 백년금준 여경(餘慶)33이 무궁(無窮)하고
 장구(長久)하신 일신(一身)부귀(富貴) 전정(前程)이 만리(萬里)34로서
 친정을 일을지되 또 무엇이 결연(缺然)35하오
 주당의 양접시하 만세만영(萬世滿盈)36 하오신중
 체인(締姻)37이 담락(湛樂)38하고 후진(後進)이 장원(壯元)하니
 현매(賢妹)같은 호팔자야 어디 다시 구할소가
 필경(畢竟)39의 소원대로 가까이 출가(出嫁)하여
 양조은 분명하다 백리(百里)가 못 다되어
 당숙의 근처 행차 못뵈올 줄 어이할가
 말라하신 그 정의도 행색이 총망(惴忙)40일세
 인편(人便)41이 드물어도 월여(月餘)42가 적었으며
 심중에 있는 소회(所懷)43 서자(書字)44마당 자세하니
 나같은 이 비할진대 도리어 호강일세
 자안(慈顏)45을 조실(早失)46하고 학발편편(鶴髮翩翩)47 우리 부친
 목하(目下)48의 핏상척 오매(寤寐)49에 맺혔으니
 이렇다 슬픈 심화(心火) 어느 곳에 풀릴손가
 이렇다 슬픈 심회(心懷) 그 문에 들어올 제
 혈혈(子子)50한 환촌으로 소견(所見)51이 망매(茫昧)52터니
 배움없이 연천(年淺)53하여 재리(財利)54 보호하며
 구고(舅姑)55의 어진 덕택(德澤) 일심으로 지도(指導)하니
 종족(宗族)56일지 비복(婢僕)57일지 숙야(夙夜)58의 동동(懂懂)59커나

소임(所任)의 중한 몸의 역력(歷歷)60키 기록하니
 전일(前日)의 우리 정은 의논이 구산61하고
 일언반사(一言半辭)62라도 송독(誦讀)63을 같이할 제
 전사(前事)64 적사온들 어이 혼자 불내던가
 그 남은 화초들도 각색으로 심으더니
 후원(後園)이며 전세상의
 없는 것은 얻어오고 있는 것은 나눠하여
 세우중(細雨中)에 북돋으며 대한중(大旱中)65의 물주기와
 저 꽃은 어더어떠 이 풀은 무엇무엇
 풀꺾어 싸움하기66 꽃따서 비교하기
 떠난지 칠삭(七朔)만에 금춘(今春) 삼월(三月) 돌아와서
 이 꽃이 만발하고 저 풀이 향내나니
 풀이 자연 결연(結緣)67되고 꽃꽃이 다정한 듯
 이 사람은 아니오나 그 공력(功力)68은 남았으니
 네가 차마 떨어지며 내가 차마 꺾을소야
 작일화(昨日花)69야 금일화(今日花)70야 구정(舊情)71은 남았으니
 거년(去年)인지 금년(今年)인지 봄은 비록 저무오나
 영원의 관원일일 풍국시절 돌아오면
 천자기편 쉬우리니 당상(堂上)72의 수유(受由)73얻어
 귀녕부모(歸寧父母)74 하오실 제 호안(好顔)을 상봉(相逢)하세
 청춘소년(青春少年) 어진 군자(君子) 백마형상 후행이세75
 연연(娟娟)76한 낮빛으로 흥흥(欣欣)77이 악수하면
 눈물이 웃음되고 웃음이 만리(萬里)되어
 일당 화수관 회중에 만단정회(萬端情懷)78 퍼올 적에
 원망도 어디가고 한탄도 없어지리
 회답(回答)을 못 다보아 단문(短文)79과 졸필(拙筆)80도 대강이닷
 일백육십귀라 하여도 수난(羞赧)81한 말은
 제제하기로 그리났됐듯
 일백육십귀는 절반으로 회색커라
 첫 사향곡은 시매(媿妹)의 적어 온
 둘째 사향곡은 동생댁 소답(所答)82

[각주]

- 75) 백사(百事) : 여러 가지의 일.또는 모든 일.
- 76) 반편(半偏) :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77) 소여(掃如)하여 : 남김없이 쓸어낸 듯하여.
- 78) 책망(責望) :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
- 79) 내렴 : 내념(內念, 마음속의 생각)의 오기.
- 80) 동동(憧憧) : 마음이 잡히지 않아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81) 측량(測量)없다 : 한이나 끝이 없음.
- 82) 애연(哀然) : 슬픈 듯.
- 83) 녅니소서 : 여기소서의 오기.
- 84) 필연(筆硯) : 붓과 베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85) 준준무식(蠢蠢無識) : 굼뜨고 어리석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
 - 1) 춘면(春眠) : 봄철의 노곤한 졸음.
 - 2) 몽롱(朦朧) : 의식이 흐리멍덩함.
 - 3) 백설(百舌) : 백설조(百舌鳥)의 준말.지빠귀과에 딸린 새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개똥지빠귀·검은지빠귀·노랑지빠귀·붉은지빠귀·호랑지빠귀·흰눈썹지빠귀·흰배지빠귀 따위.까치보다 좀 작은 새의 하나.암수가 빛깔이 다른데, 대체로 붉은 갈색(褐色)의 머리와 검은빛의 날개를 가졌으며 가슴과 배는 흰.여름새로 극동 지방(地方)에서 번식(繁殖)하고, 동남(東南) 아시아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먹이는 주로 동물성(動物性)임.
 - 4) 인방(寅方) : 이십사방위의 하나.동북(東北)에서 남으로 15도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각도 안의 방향.
- 86) 만세무강(萬世無疆) :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삶.
- 87) 부귀공명(富貴功名)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 88) 문호(門戶) : 문벌(門閥).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 89) 길경(吉慶) : 아주 경사스러운 일.
- 90) 복록(福祿) : 타고난 복과 벼슬아치의 녹봉이라는 뜻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이르는 말.
- 91) 여해하고 : 바다같이 깊고.
- 92) 만대유전(萬代流傳) : 길이길이 전하여 내려옴.
- 93) 주야축수(晝夜祝手) : 밤낮으로 두 손바닥을 마주 대고 빙.
- 5) 표연(飄然) : 훌쩍 나타나거나 떠나가는 모양.
- 6) 연작(練鵲) : 때까치과의 새.편 날개의 길이는 8~9cm, 꼬지의 길이는 8~10cm이며, 몸의 색깔은 암수가 다른데 대체로 머리는 붉은 갈색, 등은 회색, 날개는 검은색이고 가슴과 배는 흰색.날카로운 부리로 개구리, 곤충 따위를 잡아먹음.한국, 일본, 사할린, 중국 등지에 분포.
- 7) 황조(黃鳥) : 노란 꾀꼬리.
- 8) 환우(換羽) : 짐승이나 새의 묵은 털이 빠지고 새 털이 남.털갈이.
- 9) 시매(媿妹) : 시누이.
- 10) 지점(指點) :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임.
- 11) 창두(蒼頭) : 종살이를 하는 남자.사내종.

- 12) 일봉서(一封書) : 봉투에 넣어서 봉한 한 통의 편지.일봉서간.
- 13) 시편(媿便) : 남편의 집안 쪽.
- 14) 관곡(款曲) : 매우 정답고 친절함.
- 15) 몽사(夢事) : 꿈에 나타난 일.
- 16) 정담(情談) : 정답게 주고받는 이야기.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이야기.
- 17) 격언(格言) :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
- 18) 자미(子美) : 당나라의 시성(詩聖) 두보의 자.
- 19) 장자방(張子房) : 중국 한나라의 정치가이자, 건국 공신.자는 자방(子房).시호는 문성(文成).소하(蕭何)·한신(韓信)과 함께 한나라 건국의 3걸로 불림.선견지명이 있는 책사로서 한나라의 서울을 진나라의 고지인 관중으로 정하고자 한 유경의 주장을 지지함.
- 20) 장자방의 사향곡 : 《사기(史記)》 <항우본기(項羽本紀)>에 의하면 초(楚)의 항우가 한(漢)의 유방(劉邦)군에 패하여 해하(垓下)에서 포위되었을 때, 사방을 에워싼 한나라 군사 속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크게 놀라,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점령했다는 말인가, 어째서 초나라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 하고 슬퍼하였다 함.이것은 한나라 고조가 꾸며낸 심리작전으로, 최후(最後) 전투에서 장량(張良)이 통소로 사향곡(思鄉曲)을 부니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일어나서 100만의 초(楚)나라 대군(大軍)이 전투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다는 고사.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됨.
- 21) 수록 : ~수록의 옛 말.구경할수록.
- 22) 알뜰 : 알뜰하다의 어간.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참되고 지극함.
- 23) 낙양거의 견추풍 : 낙양성리 견추풍(洛陽城裏 見秋風)의 오기.당나라의 시인 장적의 <秋思>의 한 구절로 洛陽城裏 見秋風 (낙양성 안에서 가을바람을 맞아) 라는 뜻.
- 24) 배사친(倍思親) :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시 <九月九日憶山東兄弟>에서 “매봉가절배사친(每逢佳節倍思親, 매번 명절이 되면 가족생각이 곱절로 나네)라는 구절.
- 25) 심화(心火) : 마음속에서 북받쳐 나는 화.
- 26) 명문대가(名門大家) : 훌륭한 문벌의 큰 집안.
- 27) 부생모육(父生母育) : 부모가 낳고 기름.
- 28) 수은(受恩) : 은혜를 입음.
- 29) 연광(年光) : 흘러가는 시간.세월(歲月).
- 30) 고가현부(故家賢婦) : 예전에, 이름난 집의 어진 며느리를 이르던 말.
- 31) 존당(尊堂) : 남의 집이나 집안을 높여 이르는 말.
- 32) 층층(層層)전의(典儀) : 층층마다 치러야할 법식(法式)과 의식(儀式)을 아울러 이르는 말.
- 33) 여경(餘慶) :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보답으로 뒷날 그 자손이 받는 경사.
- 34) 전정만리(前程萬里) : 나이가 젊어 장래(將來)가 유망(有望)함.
- 35) 결연(缺然) : 모자라서 서운하거나 불만족스러움.
- 36) 만세만영(萬世滿盈) : 아주 오랜 세대동안 가득 참.
- 37) 체인(締姻) : 부부의 인연을 맺음.
- 38) 담락(湛樂) : 오래도록 즐김.평화롭고 화락하게 즐김.
- 39) 필경(畢竟) : 끝장에 가서는.마침내.

- 40) 총망(總忙) : 매우 급하고 바쁨.
- 41) 인편(人便) : 오거나 가는 사람의 편.
- 42) 월여(月餘) :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달포.
- 43) 소회(所懷) :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 44) 서자(書字) : 간단한 편지.글이나 글자.
- 45) 자안(慈顏) : 자애로운 어머니의 얼굴.
- 46) 조실(早失) : 일찍 여읜.
- 47) 학발편편(鶴髮翩翩) : 학의 깃털처럼 하얀 머리털이 가볍게 날리는 모양.
- 48) 목하(目下) : 눈앞의 형편 아래.바로 지금.곧
- 49) 오매(寤寐) : 자나 깨나 언제나.
- 50) 헐헐(孑孑) :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로움.
- 51) 소견(所見) :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 52) 망매(茫昧) : 경험 따위가 적어 세상 물정에 아주 어두움.
- 53) 연천(年淺) : 나이가 아직 적음
- 54) 재리(財利) : 재물과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
- 55) 구고(舅姑)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시부모.
- 56) 종족(宗族) : 성(姓)과 본(本)이 같은 겨레붙이.
- 57) 비복(婢僕) :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58) 숙야(夙夜) :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 59) 동동(憧憧) : 마음이 잡히지 않아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60) 역력(歷歷) :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함.
- 61) 구산(口算) : 입으로 계산함.
- 62) 일언반사(一言半辭) : 한 마디 말과 반 구절이라는 뜻으로, 아주 짧은 말을 이르는 말.일언반구(一言半句).
- 63) 송독(誦讀) : 소리를 내어 글을 읽음.외워서 글을 읽음.
- 64) 전사(前事) : 앞서 있었던 일.또는 이미 지나간 일.
- 65) 대한(大旱) : 크게 일어난 가뭄.큰 가뭄.
- 66) 풀꺾어 싸움하기 : 소년 소녀들이 풀을 꺾어서 엮어서 서로 잡아당기는 놀이.
- 67) 결연(結緣) : 인연을 맺음.또는 그런 관계.
- 68) 공력(功力) : 애써서 들이는 정성과 힘.
- 69) 작일화(昨日花) : 어제 핀 꽃.
- 70) 금일화(今日花) : 오늘 핀 꽃.
- 71) 구정(舊情) : 옛날부터 있어온 정.
- 72) 당상(堂上) : 조부모나 부모가 거처하는 곳 또는 집의 일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3) 수유(受由) : 말미를 받음.또는 그 말미.
- 74) 귀녕(歸寧) :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근친(覲親).
- 75) 백마형상 후행일세 : 백마를 타고 뒤를 따라옴.여기서는 지은이의 시누이가 친정으로 근친을 때 나 이어린 소년 신랑이 백마를 타고 신부가 탄 가마 뒤를 따라서 처가에 온다는 뜻.

- 76) 연연(娟娟) : 빛이 얹고 산뜻하며 고움.아름답고 어여쁨.
- 77) 흥흥(欣欣) :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움.
- 78) 만단정회(萬端情懷) : 온갖 정과 회포.
- 79) 단문(短文) : 글을 아는 것이 넉넉하지 못함.
- 80) 졸필(拙筆) : 솜씨가 서투르고 보잘것없는 글씨나 글.
- 81) 수난(羞赧) : 부끄러워 얼굴을 붉힘.
- 82) 소답(所答) : 대답한 바의 것.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